

화학·생물분야 연구실의 사고통계 분석

이명환[†], 배은시, 최경화, 노영희
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
(lmh0884@kribb.re.kr[†])

국내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은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이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 그만큼 연구실은 획일화 되어 있는 작업과정이 아닌 새로운 물질의 합성, 공정의 개선 등 연구내용에 따라 그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, 그 결과 연구활동종사자는 잠재적 위험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. 그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에 보고된 연구실 사고는 총 882건이며, 이 중 화학, 생물분야 연구실의 사고는 551건으로 전체 사고의 62.5%를 차지하고 있다.

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학, 생물분야 연구실의 사고시점, 발생원인, 연구활동종사자의 신분 등에 따른 현황 분석을 통하여 사고 발생 예방 및 동종사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.

향후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의 지원시책 등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.